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신한동해오픈은 KPGA와 아시안 투어가 공동 개최한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시안 투어

2018시즌부터 +30개 대회 · 총상금 400억 이상

1994년 아시안 프로골프협회(PGA)로 창설돼 현재 23년의 역사를 보유한 아시안 투어(Asian Tour)는 올 시즌 서쪽으로는 스위스에서 동쪽으로는 피지까지 전 세계에서 29개의 대회를 주관한다. 2017시즌 전세계 255명의 선수들이 총 400억원의 상금과 세계 골프 랭킹 포인트를 놓고 19개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대회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열리며, 아시안 투어 단독 주관 대회들은 사실상 모든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에서 개최된다.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각 대륙의 프로 투어와 동맹 관계를 맺고 공동 주관 대회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아시안 투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비롯해 유러피언 투어 등과 함께 국제프로투어연맹(IFPT)의 6개 투어 멤버 중 하나다.

이번 시즌 유러피언 투어와 6개, 일본프로골프투어(JGT)와는 4개 대회(동남아 2개, 일본 2개)를 공동 주관

하고 있다. 남아공과 모리셔스에서 열리는 2개의 대회를 선사인 투어를 함께 열고 호주 투어에도 3개 대회를 개최한다.

상금 규모가 가장 작은 대회는 '방글라데시 오픈'으로 30만 달러(약 3억 4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PGA 투어와 매년 말레이시아에서 공동 주관하는 CIMB 클래식의 총상금은 700만 달러(약 80억원)로 상금 격차가 무려 23배에 이른다. 지난 주말 한국에서 열린 '신한동해 오픈(총상금 12억원)'을 비롯해 '비즈비시 다이아몬드컵', '월드 슈퍼 시스', '피지 인터내셔널', '리조트 월드 마닐라 마스터스' 등은 100만 달러(약 11억원)가 넘는다.

아시안 투어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투어와는 지속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올해 초 중국골프협회와는 내년부터 새롭게 4개 대회를 공동 주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와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코리안투어 '신한동해오픈'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아시안 투어는 내년년부터 공동 주관 대회를 늘리기로 협의했다.

기존 '신한동해오픈'을 포함해 '코오롱 한국오픈(총상금 12억원)'과 'GS칼텍스 매경 오픈(총상금 10억원)'도 공동 주관하기로 했다.

내년 시즌부터는 아시안 투어의 규모가 3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한편 총상금도 4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안 투어 관계자는 "아시안 투어가 연간 45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멤버들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선수들이 세계 각국 선수들과 경합하며 더 많은 골프 랭킹 포인트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시안 투어 관계자는 "아시안 투어가 연간 45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멤버들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선수들이 세계 각국 선수들과 경합하며 더 많은 골프 랭킹 포인트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시안 투어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투어와는 지속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올해 초 중국골프협회와는 내년부터 새롭게 4개 대회를 공동 주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프로골프협회

/김민근기자

## 세인트루이스 매체, "오승환, 올해 끝으로 팀 떠날 가능성 높아"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매체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의 칼럼니스트 릭 험멜은 19일(한국시간) 북지와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오승환의 미래에 대해 전망했다.

오승환의 이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험멜은 "오승환은 올 시즌 이후 세인트루이스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내 다른 팀의 구상에 포함돼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오승환은 계약기간 1+1년에 최대 1100만 달러를 받고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오승환은 올 시즌을 마치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오승환은 올 시즌 지난해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전반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중간계투로 밀려났다.

올해 59경기에서 56%이닝을 던진

오승환은 1승 5패 20세이브 평균자책점 3.83의 성적을 거뒀다.

오승환은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 탓에 지난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험멜은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는 2년간 40개에 가까운 세이브를 올렸지만, 부상이나 슬러더가 좋지 않을 때 고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인트루이스 불펜 투수의 상당수는 올 시즌을 마친 뒤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민근기자

## 손흥민 "모든 대회 우승하길 희망"

리그컵 · 챔피언스리그 · 프리미어리그 · FA컵 준비 마쳐

잉글랜드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5)이 우승 트로피를 향한 야망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영국 일간지 이브닝 스탠다드의 인터뷰에서 "리그컵,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위로 신흥 강호의 입지를 굳힌 토트넘이지만 우승컵과는 좀처럼 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EPL 우승은 1960~1961시즌 이후 맥이 끊겼고 FA컵에서도 23년째 무관에 그치고 있다.

비교적 우승 가능성이 높은 리그컵 역시 2007~2008시즌 우승이 마지막이다.

오는 20일 챔피언스리그(2부리그) 소속 반슬리와 리그컵을 앞두고 있는 손흥민은 "선수들의 표정에서 얼마나(우승에) 배가 고프는지 알 수 있다"고 비장한 팀 분위기를 전했다.

손흥민은 이어 "우리가 리그컵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나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이다. 토요일 경기처럼 이기지 못할 때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지난 17일 스완지 시티와



지난 17일 스완지 시티와의 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왕백으로 출발한 손흥민은 측면과 최전방까지 부지런히 오가며 스완지 골문을 노렸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의 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왕백으로 출발한 손흥민은 측면과 최전방까지 부지런히 오가며 스완지 골문을 노렸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우리는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스완지보다 훨씬 좋았지만 축구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다음 경기를 향해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매 경기 100%를 쏟아야만 이길 수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약간 운이 없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친인 케빈 비머와의 작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비머는 올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스토크시티로 떠났다.

"내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조금은 슬프지만 그가 스토크에서 행복하더라면 나 역시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근기자

## K리그 전북현대 이동국, 29라운드 MVP 선정

역대 최초 70-70클럽 주인공

전인미답의 70골 70도움 고지에 오른 이동국(전북)이 29라운드 최고의 별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MVP로 전북현대 모터스의 이동국을 선정했다.

이동국은 지난 17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킥오프 후 41초만의 선제골을 포함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K리그 통산 400경기 만에 197골 71도움을 기록하며 역대 최초 70-70클럽의 주인공이 됐다.

클래식 라운드 MVP는 K리그와 스포츠투어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투아이 지수(득점, 슈팅, 패스, 볼

경합,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 등 주요 경기 행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 산출한 지수)와 연맹 경기평가회의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이동국과 주인공(상주), 이근호(강원)가 이름을 올렸다.

송시우(인천)-이재성(전북)-진성욱(제주)-김호남(상주)이 미드필드진을 꾸렸고 김민재(전북)-박진포(제주)-토미(전남)가 스리백을 형성했다.

최고의 골키퍼로는 신화용(수원)이 뽑혔다.

챌린지 30라운드 MVP에는 아산의 김현이 선정됐다.

/김민근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